

## 대한산업안전협회 · 여주시, 산업안전 관련 투자협약 체결



대한산업안전협회(회장 신진규)와 여주시(시장 주철현)는 7월 31일 '일자리 창출 및 산업안전 관련 투자협약'을 체결하고, 향후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. 여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과 주철현 여주시장을 비롯해 김철석 경영지원본부장, 김재현 광주지역본부장, 김종원 전남지회장 등 협회 주요 인사와 김두인 기획경제국장, 성동범 산단지원과장, 최양수 투자유치과장 등 여주시 관계자가 참석했다.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여수지역 기업의 안전경영을 도모하고,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. 먼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약 20억 원을 투자하여 울촌산단지역에 전남지회 사옥 및 산업안전교육장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협회는 여수 및 전남지역 사업체의 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, 연간 2000여 명의 산단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담당할 예정이다. 또 여수시는 협회의 산재예방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. 이날 신진규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"협약을 계기로 울촌산단, 여수국가산단에 소재한 화학공장 등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현장밀착형 기술지원에 나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'아름다운 여수'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"고 말했다.